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토티

2021 03

2021 안산 방문의 해

안산시 풍도항



3월이면 안산9경 중 하나인 풍도에 피어나는 야생화 '풍도바람꽃'

안산톡톡 Vol. 487

발행일 2021년 2월 25일

발행인 안산시장 윤화섭

발행처 (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 대변인

☎-안산톡톡 www.ansantalktalk.net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Fax 031.481.3224

E-mail ansannews@korea.kr



 @ansancity3

 안산시청

 @ansancity

 cityansan

 ansancity

 YouTube 안산시유튜브

 ansancity



표지 이야기

안산 9경 중 하나인 풍도의 봄 풍경. 대부도 남서쪽으로 24km 떨어져 있는 풍도는 서해안 섬 중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야생화가 피어나는 섬으로 유명하다.

사진제공 안산시

목차

- 04 **특집 ①**
독립운동가, 최용신 선생
- 06 **특집 ②**
3월 신학기 준비 특집!
- 08 **인터뷰**
안산시청 김원진 유도 선수
- 10 **생생도시**
안산시민이 알아야 할 안산시 소식
- 12 **기획_청년큐브**
청년 창업의 꿈을 응원하는 안산
(주)마이렌, (주)에이아이포블록체인
- 16 **살맛나는 안산**
명예시민기자가 전하는 안산 이야기
- 22 **의회소식**
- 24 **우리 동네**
- 26 **시민기자가 간다**
생생 마을기자단, 학생기자단, SNS시민기자단
- 28 **참여마당**
건강칼럼, 독자투고, 나비잠
- 32 **알림마당**
이달의 책, 문화 캘린더, 3월의 독자 퀴즈



‘교육을 통해 사람을 깨우치고, 세상을 바꾸다’ 소설 '상록수' 실제 주인공, 최용신 선생의 애국계몽활동

1930년대는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이 본격화 되는 시기로 식민지 조선에 대한 병참기지화 정책이 시행됐다.

이런 엄혹한 시기인 1931년 10월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안산에서 활동한 최용신은 농촌계몽활동 모범 사례로 알려지면서 세상에서 주목을 받게 됐다. 그녀의 활동은 후대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안산시는 2002년 최용신 선생 뜻을 기리고자 그를 모델로 한 심훈의 소설 '상록수'에서 이름을 따 구(區) 이름을 '상록구'로 정했다.

최용신은 1909년 8월 함경남도 덕원군 현면 두남리에서 최창희의 2남 3녀 중 차녀로 태어났다. 최용신은 1918년 두남학교에 입학해 2년간 다니다가 원산의 루씨여자보통학교로 전학을 갔다. 1928년 같은 계열인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그는 고등보통학교를 졸업 후 공부를 위해 그 해 경성(현재 서울)에 있는 협성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황애덕 교수를 만나게 된다.

여성독립운동가로 활동한 황애덕은 협성신학교 농촌사업지도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농촌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또 농촌운동을 가르치면서 책임자를 선정해 파송하는 일을 했다. 농촌운동가인 황애덕을 만난 최용신은 학문적인 배움과 함께 농촌계몽운동에 대해 영

향을 받았다.

최용신은 본격적으로 농촌계몽운동을 하기 위해 1931년 10월 수원군 반월면 샘골(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로 왔다. 최용신이 처음 들어올 당시 샘골은 주민이 총 20여 가구밖에 안 되는 가난한 농촌 마을이었다. 처음에는 초보적인 한글·산수를 비롯해 재봉·수예·가사·노래·성경 등을 오전반·오후반·야간반으로 나눠 밤늦게까지 진행했다.

3개월이 되자 학생들이 많아져 예배당에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졌고, 새로운 방안을 궁리하던 끝에 학원 인가를 내기로 결심했다. 학원 설립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교회 를 비롯해 염석주와 같은 유지들이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1932년 5월 중순경 어렵게 학원 설립 인가를 받았다.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시절 최용신
(1928·앞줄 오른쪽)



협성여자신학교 시절의
최용신
(1931·사진 가운데)



샘골강습소 낙성식



이후 학생 수가 60명으로 늘어났고 최용신은 3부제로 나눠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루 수업 시간은 6~7시간. 주로 애국 사상을 고취하는 내용의 교육과 성경의 모세 이야기를 가르쳤다. 자수도 한국 지도를 무궁화 꽃으로 꾸미는 것을 가르쳤고, 음악 시간에는 '무궁화 이 강산 역사 반만년'이란 노래를 가르쳤다. 그러던 중 반월면 둔대 교회 설립자인 박용덕이 땅을 기증하면서 적극적으로 학원 터를 마련했고,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져 10월 정초식을 거행하고 이듬해 1월 간절하게 바라던 샘골강습소를 완공했다.

샘골강습소가 완공된 후 봄이 되어 학생을 모집하니 1백 명이나 됐다. 그러나 일제는 학원 설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60명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한편 YWCA에서 매달 보조해 주던 지원금 30원을 2년 만에 15원으로 삭감했으며, 힘이 되어 준 큰 일꾼 황중우 선생조차도 본인 진학 문제로 사임을 했다. 옆친 데 달친 격이 아닐 수 없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에 겨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학업에 대한 부족함을 느낀 최용신은 1934년 3월 일본 유학을 결심했다. 최용신은 일본 고베여자신학교 사회사업과에서 공부했으나 유학 6개월 만에 각기병으로 귀국했다. 선생이 돌아온 날부터 샘골은 안정을 되찾았고 선생의 건강도 차츰 회복되어 갔지만 YWCA가 재정난으로 1934년 10월부터 보조금을 완전히 끊는다. 이후 병세가 다시 악화되어 급히 수원 도립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병명을 알아보니 '장중첩증'이었다. 어렵게 수술을 했으나 결국 최용신은 1935년 1월 23일 짧은 생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선생이 보여준 삶은 비록 짧았지만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선생은 교육을 통해 사람을 깨우치고, 세상을 바꾸고 일제에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려 했다. 수많은 제자들과 샘골 사람들은 선생을 잊지 않았고, 그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안산에 살아있어 상록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대광 (안산향토사연구소장)



지난 1월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하고 학교별로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속에서
학교별로 학사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학교 안내사항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지난 호에 이어 코로나19 사태에도 입학과 등교 준비에
한창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소개한다.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가 알아야 할 정보들

①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설치하기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활용해 등교 전 반드시 자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
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등교 전에 담임교사에게 연
락을 취해야 한다.

② 스마트기기 및 무선 인터넷 환경 준비하기

학교별, 학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보다 쌍방향 원격수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쌍방향 원격수업 참여를 위한 스마트기기와 와이파이 환
경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노트북과 태블릿, 스마트폰, 데스크톱 등 스마트기기를
구매하거나 학교의 '스마트기기 대여 지원 사업' 안내에
따라 대여할 수 있다.

Tip 스마트기기 특징을 미리 알아보고 구매하자!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은 스피커와 마이크, 캠이 내장되어
있어 부수적인 기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은 학습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데스크톱은 웹캠과 마이크, 스피커 등 부수적인 기기가 필요
하다.



③ 쌍방향 원격수업 및 전화·문자 예절 지키기

온라인 교실에서 선생님과 소통 창구로 전화와 문자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준비가 됐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상황극을 하면서 연습해보는 등 쌍방향 원격수업과 전화, 문자 예절을 배워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④ 개인 준비물 잘 챙기기

개인 위생용품으로 여분의 마스크와 물통 등은 꼭 챙기고, 등교 날 배부되는 안내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준비물 이외의 개별 준비가 필요한 것들을 챙기면 된다.

Tip 개학 후 일주일 정도는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미리 준비하기보다 이 시기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학용품 구입을 줄일 수 있다.

⑤ 학급 SNS 등을 통해 가정통신문 꼼꼼히 확인하기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중요한 안내사항이 잘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예기치 않은 변동사항이 많은 코로나19 시기에 학급 SNS 등을 통해 전달되는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면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장희락(안산 시랑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

① 기본 생활 습관 연습하기

학기 초 학교에서는 입학초기 적응활동 시기를 두고 기본 생활 습관을 교육한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수저 잡는 방법, 공중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방법,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방법 등 기본 생활 습관을 익혀보는 것도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된다.

② 아이와 미리 등·하굣길 걸어보기

미리 아이와 등·하굣길을 걸어보면서 자연스럽게 길을 익히고 '신호등 안전하게 건너기',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않기' 등 안전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쌍방향 원격수업 방법 아이와 함께 알아보기

교육부에서 저학년의 매일 등교를 추진하고 있지만 '줌'과 '구글 미트'와 같은 쌍방향 원격수업 앱 이용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추후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④ 필수 예방접종 완료하기

코로나19가 유행 중이더라도 제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입학 전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꼭 완료하도록 하자.

Tip 1학년 필수 예방접종 종류: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출처=교육부)



‘2021 국제유도연맹(IJF) 월드마스터스 대회’ 금메달리스트 김원진 선수



“무조건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한국 남자유도 60kg급 간판 김원진(안산시청) 선수가 올해 1월 카타르 도하 루사일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1 국제유도연맹(IJF) 월드마스터스’ 대회에서 남자 60kg급 결승에서 타이완 양용웨이를 한판승으로 꺾고 정상에 오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원진 선수는 수상식 직후 "경기 전에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오열했다.

Q. ‘도하 월드 마스터스 대회’ 우승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여자 유도 명문으로 알려진 안산시청 팀에 첫 남자선수로 입단하게 되어 선수로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자부심이 더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년 동안 대회들이 취소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는데 안산시청 소속으로 처음 그리고 올해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기쁘다. 특히 새로운 팀에 좋은 인상을 주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Q 대회 경험이 많은데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한 비결이 있는지?

A 시합과 대회라는 것이 선수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산시청에 입단하면서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감독님, 코치님이 운동 환경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써주셨다.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한결 마음이 편했고, 선수로서 할 것만 열심히 하면 됐기에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Q 안산시청 유도 팀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

A 작년까지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군인신분이었다. 전역을 앞두고 이용호 감독님 통해서 안산시청 유도 팀 입단 관련 연락을 받았다. 여러 팀에 입단할 기회가 있긴 했지만 안산시청 팀에 가장 끌려서 입단을 결정하게 됐다. 안산시청 유도 팀에 남자선수는 처음이라고 들었다.



Q 준비하고 있는 대회가 있거나, 가까운 목표가 있는지?

A 아직 개최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는 3월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랜드슬램 대회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쿄올림픽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지 주변에서도 걱정이 많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올림픽을 바라보고 있다.

Q 선수로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A 이제 선수로서는 적은 나이가 아니다. 하지만 안산시청에 있으면서 최대한 선수 생활을 오래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이후에는 공부도 하고 선수로서의 경험을 잘 살려서 지도자 쪽으로도 도전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유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한다.

Q 안산특독 독자들과 안산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코로나19로 훈련 상황도 어렵지만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모두가 힘을 냈으면 하는 마음이다.





사진제공 김남국 사진작가

멸종위기 큰고니 수백 마리, 안산 시화호에서 겨울나기 포착

멸종위기생물로 지정된 '큰고니' 수백 마리가 지난 2월 안산 시화호 등지 담수호에서 겨울나기에 들어갔다. 천연기념물인 큰고니를 비롯해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흑고니'도 수십 마리가 발견됐다.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큰고니는 약 7천 마리로 절반은 낙동강 하구로 내려간다. 시화호 부근에서 수백 마리씩 겨울나기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평균 수명은 28년에 평생 일부일처인 흑고니는 약 100마리만이 우리나라에서 월동한다.

전국 최초 임산부·신생아 ‘품안앓 안심보험’ 추진



안산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생활안전보험 무상 가입을 추진하는 ‘품안앓 안심보험’을 실시한다. 가입 대상은 지난 2월8일부터 2022년 2월 7일까지 임신 확인 일을 받은 임산부와 출생한 신생아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임산부 안전사고는 ▲사망 최대 1천만 원 ▲후유장애에 최대 1천만 원 ▲장애발생소득보상위로금 최대 50만원 ▲골절사고·화상발생 위로금 30만원 ▲상해입원(180일한도) 1일당 3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최대 1천만 원이다. 신생아 안전사고는 ▲골절·화상발생 위로금 30만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발생 진단금 30만원 ▲상해입원(180일한도) 1일당 3만원을 각각 보장한다.

문의 : 안산시 여성보육과(031-481-2303)

지역특산물로 만드는 ‘안산 브랜드 빵’

안산시는 대부도 포도, 김 등 시 특산물을 활용한 ‘안산 브랜드 빵’ 개발에 나선다. 지난 2월16일 군자농협, 안산대부밀 콩 영농조합법인, 청춘영어조합, ㈜좋은아침과 업무협약을 맺고 품질 좋은 특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빵 개발 및 생산을 약속했다. 시는 안산 토박이 기업인 ㈜좋은아침 등이 함께 개발한 안산 브랜드 빵이 지역 전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 : 안산시 위생정책과(031-481-2232)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안산시는 코로나19로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심리안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한다. 자가격리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원활하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심리지원 안내 문자와 전화 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우울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전화 상담으로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문의 : 안산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031-411-7573~4)



‘2021 안산 방문의 해’ 추진

안산시는 2020년에 이어 ‘2021 안산 방문의 해’를 추진한다. 천혜의 생태 관광자원을 보유한 대부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관광객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수도권 최고의 자연 관광지로 만들 예정이다.



청년 창업의 꿈을 응원하는 이^사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을 위해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그중 청년큐브는 청년 창업가가 창업 위기를 극복하고 창업과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인프라를 지원하는 곳이다.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연령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청년큐브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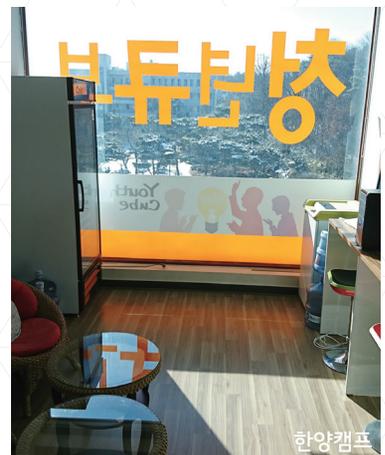
나만의 콘텐츠를 키우는 전문 창업 공간, 청년큐브

청년큐브는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공간이다. 청년큐브는 청년 등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큐브’라는 창업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창업과 창작, 창의 등 관련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뛰어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공간과 자본, 지원 시스템 등을 맞춤 지원한다는 점에서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청년큐브 시설은 2016년 2월 한양캠프(창업실 10실·상록구 한양대학로 60)와 예대캠프(20실·상록구 광덕산안길20)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 초지캠프(20실·단원구 원포공원1로 59)가 추가로 문을 열어 총 3개소에 50실이 운영되고 있다. 청년 등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창업 공간 50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외에도 세미나실과 전시장, 회의실, 공용 휴게실 등을 갖췄다.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도록 오직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청년큐브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멘토링, 제품화, 마케팅, 각종 인증 등 109건의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청년큐브 입주 기업들은 창업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과 창업 교육, 사업화 지원, 국내·외 전시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입주 대상은 예비·초기 창업자,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 등이다. 입주 기간은 1년이며 연차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3984),
청년큐브 홈페이지(<http://www.youthcube.net>)





청년큐브에서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가의 도전을 엿볼 수 있다.

(주)마이렌 ‘나만의 사이렌’을 울려라



직원 모두가 20대로 구성된 (주)마이렌은 ‘교통사고 최소화’를 기업 목표로 2020년 설립된 청년 기업이다. ‘나만의 사이렌’이라는 뜻의 마이렌은 지난해 개발한 차량용 IoT(사물인터넷) 삼각대의 이름이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휴대폰에 설치한 앱이 충격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앱도 개발했다. 이때 신고 전화는 앱

내 자신이 설정해 놓은 비상 연락망으로 바로 연결된다. 실생활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사고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마이렌은 청년큐브에 입주한 후 시제품 제작 등 지원을 받으면서 오는 5월

‘e-Call’이라는 실시간 사고신고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다. e-Call 역시 앱을 설치하고 누르면 단순히 콜센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정해 놓은 연락처로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췄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주)마이렌은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최근에는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전시회 ‘CES 2021’에 참가해 해외 투자사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특히 청년큐브에 입주한 후 국내·외 지식재산권 12건, 고용 및 매출 증가 등 성과를 이루며 급성장 중이다. 앞으로 3년 이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금보다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최은홍 마이렌 대표는 “청년큐브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청년큐브 입주기업과 안산시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온라인 기업이 정진 및 창업 교육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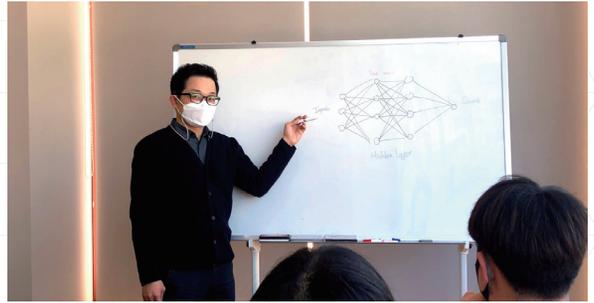


최은홍 (주)마이렌 대표



4차 산업시대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서는 청년큐브 입주 기업들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주)AI4Blockchain(에이아이포블록체인)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권리를 보장하다’



누구나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업에 도전한 (주)에이아이포블록체인은 인공지능(AI) 웹과 앱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AI 데이터를 분석, 가공하는 청년 기업이다. 특히 AI 기술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와 독자의 권익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호하는 플랫폼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는 AI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인 ‘A lock’을 개발 중이다. 또 AI를 이용한 교육데이터 제공 사업도 진행한다.

이곳에서 개발한 다양한 아이템들은 중소기업벤처부 예비창업패키지와 콘텐츠 코리아 랩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등 (주)에이아이포블록체인만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금도 관련 특허 2건을 출원한 상태로, 청년큐브 내에 AI 연구소를 설립해 AI 기술 고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편리한 디지

털 콘텐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연구, 개발 중에 있다.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서 빅 데이터와 AI 시장에서의 데이터 가공, AI 분석 맞춤형 서비스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채진호 (주)에이아이포블록체인 대표는 “청년큐브에 입주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개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은 물론 기술적, 사업적으로 다양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앞으로 청년큐브를 통해 안산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스타트업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진호 (주)에이아이포블록체인 대표





옛 사리포구의 풍경과 사람, 이야기를 만나다

사동지역사모임 ‘사리포구,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다’ 책 발간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원래 안산은 여러 어촌계가 있던 바닷가 마을이었다. 그중에서도 사리포구는 80년대 중·후반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의 소래포구나 오이도처럼 꽤 유명했던 포구다. 가끔 바닷바람 쐬면서 회가 먹고 싶을 때 버스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을 타고 쉽게 가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김장철이 되면 어머니들이 새우젓을 사러 가는 곳이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유원지처럼 놀러갈 만큼 80년대 사리포구는 많은 사람들이 찾던 장소였다.

한창 번성했던 사리포구는 1994년 시화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후 바닷물이 막히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리포구가 있던 장소는 호수공원과 도로 개발 등으로 옛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 흔적은 안산호수공원 사리광장 안에 있는 기념비와 사진으로만 알 수 있다. 당시 사리포구는 어떤 풍경이었는데, 포구 사람들은 어떤 삶

을 살았는지 등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연구가 미흡했던 ‘사리포구 이야기 발굴 작업’은 사동지역사모임을 통해 처음 시작되어 지난 1월 ‘사리포구,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다’라는 책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사동지역사모임 기록자들이 사리포구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글과 자료를 정리해 발간한 책이다. 책에는 안산 어촌계와 사리포구 역사를 알 수 있는 문헌 기록과 시대별 항공사진 변천 과정, 사리포구 관련 인물 인터뷰, 사리포구 풍경을 기록한 김용호 화백의 그림 작품 등이 담겼다.

특히 인터뷰를 통해 10년 간 사리 어촌계장으로 활동하면서 선박을 운영했던 안광업 회장과 사리포구에서 배를 타며 그림을 그렸던 김용호 화백 등 당시 사리포구를 기억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여



(좌) 김용호 '사리포구의 추억'(2012년)
(우) 김용호 '어떤추억-사리공소 바람부는 날'(2012년)

기에 김용호 화백이 캔버스에 정성스럽게 기록한 사리포구 풍경은 사람들에게 옛 사리포구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김용호 화백은 “과거를 돌아보며 늘 낭만으로 기억되는 곳이 사리포구다. 사리포구가 좋아서 몇 년간 영상으로 남겨 놓은 것들이 기록이 된다고 해 기꺼이 사동지역사모임에 제공했다”며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기록 작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동지역사모임에서 사리포구 역사를 연구, 기록한 신대광 교사는 “사리포구에는 어렵고 힘든 시절 서로를 도우며 보듬어주던 삶의 공동체가 있었다. 사리포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은 개발로 잊힌 우리의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책 '사리포구,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다'는 페이스북 페이지 '1도씨 (@oneplus992020)'와 사동지역사모임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모든 수익금은 마을박물관이자 커뮤니티 공간인 1도씨 운영비로 쓰일 예정이다.

한편 사동지역사모임은 2015년 안산과 마을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교육하기 위해 주민이 모여 지역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들어졌다. 그동안 '마을과 역사가 만나는 곳, 사동에 살다', '사동별책부록' 등 책을 발간했으며, 현재 안산 이야기와 마을 역사를 아카이빙 (archiving,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기록을 파일로 저장 매체에 보관해 두는 일)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의 : 사동지역사모임(010-9028-9252)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daum.net



1981년 사리포구 물량장 모습



1987년 사리포구 그물 손질하는 모습



1992년 사리포구 풍경

헛갈렸던 역 이름, 역사 속에서 제 이름 찾았다! ‘신길온천역은 능길역으로, 원곡역은 시우역으로 최종 확정’



능길역 명칭 개정 이미지 예시(아래)



시우역 명칭 개정 이미지 예시(오른쪽)

‘전철 4호선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다? 서해선(소사원시선) 원곡역은 원곡동이 아니다?’

안산시민이 이용하는 전철역 중 헛갈리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이 두 곳일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안산시가 역 이름 개정을 건의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해 역 이름 개정 절차에 들어간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신길온천역은 ‘능길역’으로, 원곡역은 ‘시우역’으로 각각 역 이름을 바꾸게 됐다.

왜 하필 능길역과 시우역일까? ‘능길’은 안산문화원 유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현덕왕후의 묘는 안산군 와리면 와리산(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능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 능의 이름을 ‘소릉(昭陵)’이라 했는데, 소릉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마을이 적길리였다. 단종 즉위 2년인 1454년 단종 임금이 어머니 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안

산에 행차했는데, 능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하여 그때부터 마을 이름을 ‘능길’이라 불렀다고 한다.

시우역은 어떻게 결정된 걸까? 사실 원곡역의 법정동은 원시동이다. ‘시우’ 역시 과거 이 지역에 있던 마을 이름 유래에서 따왔다. 안산문화원 유래 자료에 따르면 조선시대 안산군 와리면 시우리라는 마을은 ‘모 심을 때가 되면 언제나 때 맞춰 비가 내린다’고 하여 ‘때 시(時)’자에 ‘비 우(雨)’자를 썼다고 한다. 해마다 풍년이 드는 시우는 풍족한 마을이었고, 원주민들은 시우골을 ‘시팔’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현재 안산시는 역 이름을 바꾸면서 전철역 시설물 정비를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새로운 이름으로 맞이할 능길역과 시우역을 이용해보자.

문의 :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968)
황정욱 명예기자 loosedom@hanmail.net

‘지역서점 바로 대출제’

신간 도서, 동네 서점에서 바로 빌려보세요!



“오랜만에 서점에 들르니 기분이 으쓱해졌어요. 준비하게 꽂힌 책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듯하고 신간 코너에 있는 다양각색의 책들을 보니 독서 욕구가 제대로 충전되더라고요. 평소 사진과 그림에 관심이 많아 읽고 싶은 책을 골라 도서관에서 조회해 보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서점 바로 대출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신청한지 3일 만에 책이 준비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역서점 바로 대출제의 또 다른 매력은 새 책 냄새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책을 즐기려고 해요. 이 책을 계기로 올해 좀 더 많은 책을 읽어야겠다는 욕심을 내봅니다.”

(지역서점 바로 대출제 이용 후기)

비대면 시대 책 읽기 문화를 이끄는 ‘지역서점 바로 대출제’ 서비스가 올해도 계속 된다. 지역서점과 협력해 추진하는 이 서비스는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을 경우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지역 서점에서 바로 빌려 볼 수 있다.

안산시 만큼 도서관이 많은 곳도 없을 것이다. 도서관에 읽기 좋은 도서는 물론 신간 도서들이 비치되기는 하지만 읽고 싶은 책이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신간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신간 도서가 책꽂이에 꽂히기까지는 업무상 처리 기간이 있고, 책을 고르는 독자의 안목을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 유용한 서비스가 지역서점 바로 대출제다.

지역서점 바로 대출제에 참여한 서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규모가 작은 서점은 당장 서점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서점을 꾸준히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또 몇 년째 지속된 서비스로, 이용 고객도 점차 늘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에 희망도서제도도 있지만 바로 대출제는 더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도서관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도 도서 대출이 가능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는데 올해 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서점 바로 대출제에 참여하는 지역서점은 대동서적(사동점, 중앙점), 안산문고(고잔동), 원곡서점(원곡동), 한가람문고(선부동), 토닥토닥괜찮아(초지동), 희망서적(본오동) 등이다.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요즘, 책에서 위안과 쉼을 얻어 보는 것도 좋겠다.

문의 : 안산중앙도서관(031-481-2702)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이용 방법

- 이용기간** : 2021년 2월1일~11월30일
- 이용자격** : 안산시 도서관 대출회원증 소지자
- 이용제한** : 도서연체 등 사유로 도서관 이용정지 회원
- 대출권수** : 1인당 월 3권 이내
(이용도서는 중앙도서관 대출권수에 포함)
- 대출기간** : 14일간(1회 일주일 연장 가능)
※ 연체시 연체일수만큼 도서대출 정지
- 신청방법** : 안산시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도서 신청
⇨서점 승인 후 지정서점 방문(대출회원증 지참)
⇨도서이용 후 지정서점 반납(대출회원증 지참)

35년 간 이어진 ‘희망의 배움터’ 안산용신학교에서 만학도의 꿈을 이루세요!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졸업식이 열렸다.
지난 2월 17일 안산용신학교에서 열린
제33회 졸업식에서 어린 시절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만학도’ 28명이 빛나는 졸업장을 받았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동시에 운영한 안산용신학교는 올해 초등 6명, 중등 22명 등 2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안산용신학교는 35년 간 성인을 위한 배움터로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러 사연으로 할 수 없었던 만학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지금껏 동행해 온 것이다.

안산용신학교에 입학한지 4년 만에 졸업장을 받게 된 염행자(78) 학습자는 이곳에 와서 처음 그렸다는 그림 솜씨가 과히 놀랄만하다. 다양한 그림이 담긴 그녀의 화첩은 다른 학습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감성이 풍부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마치 중학생 소녀 같다. 염행자 학습자는 방학인 지금도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올해 졸업과 동시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글을 읽고 또 읽으며 글쓰기 매력에 푹 빠졌다.

염행자 학습자는 “늦었지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가까이에서 응원해준 가족들 덕분이다.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남편과 자녀들이 있어 만학도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용신학교에서 초등학교 학력을 취득하고 올해 중학교 과정을 마친 한 졸업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했기에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 도로 간판이 보이고 영어 간판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공부하는 기쁨이 나날이 커져 중학교 과정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듣고 배운 것들이 한쪽 귀로 들어와 다른 한쪽 귀로 나가는 것 같았는데 문득문득 머릿속에서 튀어 나와 캉캉캉 놀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졸업생은 아니지만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강금분(88) 학습자는 공부하는 것이 건강 유지 비결이라한다. 60~70대 못지않은 건강을 지닌 강금분 학습자는 오전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귀가해 집안일을



하면서 책도 읽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건강해졌다고 한다. 올해 중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치는 게 목표다.

안산용신학교는 2014년부터 안산교육지원청이 지정한 학력 인정(초·중등과정) 교육기관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인정 평생학습계좌제(고등과정) 프로그램, 안산시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외국인 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한글, 영어 기초, 중학 문해 교과목 등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전철 4호선 안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안산용신학교는 입학을 원할 경우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학교생활의 기쁨을 마음껏 느껴보자.

문의 : 안산용신학교(031-494-0675)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미니 인터뷰

 **엄행자 졸업생**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용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세요. 내 눈은 떴지만 글을 몰라 세상이 다 어둡고 보이지 않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글을 아니까 세상이 다 내 눈에 다 들어와요. 길을 가면 영어도 내 눈에 들어오고 한문도 내 눈에 들어오고 세상이 다 내 눈에 들어와 정말로 행복합니다”

 **김경옥 교장**



“안산용신학교는 35년의 역사를 가진 희망의 배움터입니다. 누구든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한글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공부는 행복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분에게 즐거운 학교생활과 졸업의 영광이 함께 할 것입니다”





안산시의회,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 지역 복지시설 5곳 방문해 소정의 격려금 전달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복지 시설을 위문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4일 안산 지역아동센터 ‘밀알행복한홈스쿨’, 공동생활가정 ‘옹달샘’·‘평강의집’·‘동산그림홈’ 등 5곳을 잇달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에는 박은경 의장을 비롯해 강광주, 유재수, 이진분, 김진숙, 주미희, 송바우나 의원이 참여했으며, 의원들은 시설별로 인원을 나눠 위문 방문했다.

의원들이 찾은 이들 시설은 교육과 생활 지도 등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내실 있는 운영으로 여타 시설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의원들 또한 이에 대한 격려와 함께 의회가 지원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시설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 더욱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장 신임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접견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장(사진 왼쪽)이 지난 2월 9일 의정실에서 오는 4월 개원 예정인 4.16민주시민교육원 전명선 신임 원장을 접견했다.

박은경 의장은 이 자리에서 4.16 정신의 가치를 지역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의회가 제정한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에 근거해 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 교통체계 개선 모색 현장 활동 실시 터미널·안산우체국 사거리 방문해 교통시설물 실태 파악 및 해결책 협의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태순)는 지난 2월 5일 지역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알려진 상록구 성포동 터미널 사거리와 단원구 고잔동 안산우체국 사거리에서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활동에는 박태순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숙 부위원장과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 등이 참여했다.

도시환경위가 찾은 두 교차로는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데 비해 차량 주행 유도 표시 등이 불분명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함께 나온 안산시 교통정책과 측으로부터 사고 유형과 사고 원인, 관련 법 규정 등을 설명 들은 뒤 교통 흐름 및 교통시설물 설치 상황을 파악하면서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터미널 사거리에서는 좌회전 차량 주행 유도선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짚었으며, 우체국 사거리에서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사고 다발지역 알림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교통 당국이 면밀히 검토해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3개팀 '등록' 아동복지-지역경제-지역유적·관광 등 분야 활동

안산시의회가 지난 1월 29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원연구단체 3개 팀의 등록을 의결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의위원회에는 사전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3개 연구단체 대표 의원들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단체 구성에 관한 제안 설명 및 단체 등록 심사를 각각 실시했다. 심사 결과 ▲안산시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Green & Clean 21 ▲뿌리 등 3개 의원연구단체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 아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은 아동 안전망 구축을, 'Green & Clean 21'은 안산형 그린뉴딜 정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각각 연구



과제로 내세웠다. '뿌리'는 안산시 역사·문화 및 생태관광 연구를 과제로 활동한다. 이들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이며, 연구단체들은 간담회와 현장 활동, 전문가 참여 토론회 등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소설 '상록수' 무대 '상록구'



이동 안산식자재마트 (주)성한 저소득 가정 위한 '사랑의 라면' 100상자 후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동/신현성 (주)성한 대표)

안산시민 김철성 씨 올해로 8년째 '사랑의 쌀' 10kg, 100포 후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많은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쌀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동/개인후원자 김철성 씨)



사과 농장 운영 중인 마창순 씨 어려운 이웃 위해 사과 10kg, 50박스 기탁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요즘. 외롭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행복한 설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성껏 재배한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직접 재배한 사과를 어려운 이웃과 나눠 먹으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안산동/개인후원자 마창순 씨)

단원 김흥도를 기리는 '단원구'



CGB 채널경기방송 KR-팝 아카데미합창단 홀몸 어르신 위한 이불 24채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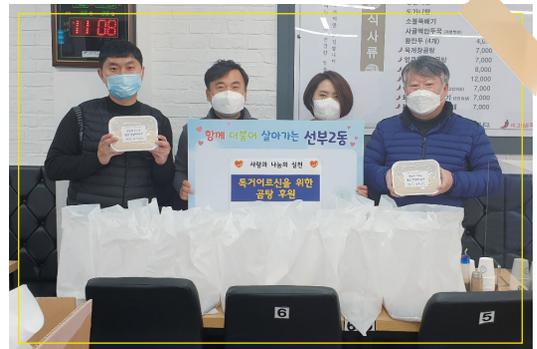
“추운 겨울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아 기부 물품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동/이용숙 KR-팝 아카데미 합창단 총괄단장)

설가네 나주곰탕 선부2동 독거어르신 가구에 곰탕 50인분 후원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은 곰탕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선부2동/설명환 설가네 나주곰탕 대표)



군자소금 저소득층 위한 천일염 3kg, 100포 기탁

“코로나19로 쓸쓸한 명절을 맞이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신길동/서상각 군자소금 대표)

시민기자가 간다

마을을 대표하는

시민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안산소식!



사동,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석호가치키움터 개소



안산그리너스FC
뉴페이스 선수들
두둥 등장!

왼쪽부터 이상민 선수, 장동혁 선수, 임재혁 선수



목공으로
제2의 인생을 살다!
5060 신중년_목공DIY



안산시는
다 준비해놨답니다~
AI화상면접 체험관!



지자체 최초
안산의 아동 지킴이!
'안산시 아동권리과'를 만나다!

건강지식 칼럼

소아 사시, 성장기 아이의 시력 관리



햇빛처럼 밝은 빛에서
윙크하듯 한쪽 눈을 감거나,
물건을 볼 때 고개를
돌리거나 기울인다면
아이의 눈 건강을
의심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과 서영우 교수

햇빛처럼 밝은 빛에서 윙크하듯 한쪽 눈을 감거나, 물건을 볼 때 고개를 돌리거나 기울인다면 아이의 눈 건강을 의심해야 한다. 멍하게 있을 때 눈이 이상하고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면 안과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사시는 두 눈이 정렬되지 않고 서로 다른 지점을 바라보는 눈질환이다. 치료하지 않으면 양쪽의 눈으로 상을 보는 양안시와 거리감을 파악하는 입체시가 소실될 수 있고, 한쪽 눈만 사용하게 되어 시기능이 저하되는 약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시는 소아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으로 국내 소아의 약 2%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좀 더 늦은 시기에 발병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한쪽 눈 또는 두 눈이 교대로 바깥으로 나가는 간헐성 외사시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그 외에 영아 내사시, 조절 내사시 등 안쪽으로 눈이 몰린 내사시나 눈이 위로 올라가는 상사시도 드물지 않다.

간헐성 외사시는 주로 만 2-3세에 발생하며 주로 피곤하거나 멍하니 있을 때, 졸릴 때 등에서 한쪽 눈이 밖으로 나가는 증상이 나타난다. 사시가 자주 보이거나 사시 각이 큰 경우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며, 수술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영아 내사시는 생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사시로 눈 근육이나 중추신경계 등의 이상이 전혀 없이도 발생한다. 영아 내사시는 사시 발생 2-3 개월부터 수술이 가능하며 보통 만 1세 전후, 늦어도 2세 이전에는 수술해 주어야 일부 입체시 발생을 기대할 수 있다.

조절 내사시는 만 1~3세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잘 볼 수 없는 원시로 인해 발생하거나, 원시가 없어도 가까운 곳을 볼 때 눈이 과하게 몰리는 형태 등으로 나타난다. 치료는 원시 교정안경이나 이중초점안경으로 교정한다. 안경을 착용해도 눈 몰림이 남는 경우에는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안경을 써도 시력이 교정되지 않는 ‘약시’의 경우 조기 치료하면 정상 시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만 8-9세만 되어도 시력이 굳어져 치료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소아의 눈 이상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특히 아이들은 눈에 불편함을 느껴도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함께하는 가치를 나누다

2021 안산의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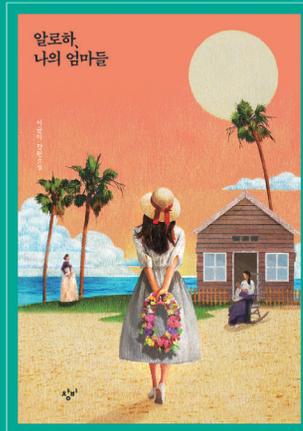
🏆 일반부문



일의 기쁨과 슬픔

장류진 / 창비 / 2019

🏆 청소년 부문



알로하, 나의 엄마들

이금이 / 창비 / 2020

🏆 어린이 부문



소문 바이러스

최형미 / 킨더랜드 / 2017

연계사업

🏠 안산 중앙 도서관	안산의 책 선포식	3월	🏠 감골도서관	하루 10분 독서운동	2월~12월
	시민서평단 양성과정	4월~9월		🏠 관산도서관	북크로싱 독서운동
	독서감상작 전국대회	6월~9월	🏠 성포도서관		독서가족인증제
	독서토론 아카데미	8월			

※ 그 외에도 독서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안산시 도서관에서 다양한 연계행사가 진행됩니다.

안산의 책을 만날 수 있는 곳

- 안산시 공공·공립작은도서관
-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가입 서점 (대동서적, 한가람문고, 안산문고, 원곡서점, 토닥토닥 관촬아, 희망서적)
- 안산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 안산시 등록 사립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가자! 정지공원으로~

사람이 안살 곳이 안산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 말을 들으며 안산에 산지가 어언 32년. 20대 꽃다운 나이에 이사 와서 살다보니 벌써 50대가 되고 안산은 제2의 고향이 됐다. 이곳에서 나는 태어난 고향 수원에서보다 더 많은 추억을 쌓으며 살고 있다. 모든 게 낯선 이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 처음 장사를 시작했다. 타월 가게, 완구점, 문구점, 옷가게, 오락실 등 종류도 다양하게 장사를 했다.

그러다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게 됐다. 암이란 놈은 운동을 해서 체온을 1도라도 올리면 몸에서 활동을 안 한다는 말을 듣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집 근처에 있는 정지공원을 가기 시작했다.

항암 치료를 받아서인지 한 걸음, 한 걸음 걸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매일 산책을 했다.

그렇게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책을 다니게 된 것이 올해로 8년째다. 처음 암이 걸렸을 때 친구들과 지인들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하던지 신경을 써주는 게 미안할 정도였다. 나름 산책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지금은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져서 부뚱하다.

집 가까운 곳에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있어서 너무 좋다. 암 환자는 산하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

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동네에 있는 정지공원에서 매일같이 산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정지공원에 다녀왔다. 지난해 봄에 찍은 진달래 사진을 꺼내보다가

올해도 빼꼼히 고개를 내밀 진달래가 기다려진다.

전원자(단원구 선부동)



안산톡톡에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사연과 함께 연락처, 주소, 글과 관련된 사진을 ansannews@korea.kr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면 5만원 이상의 소정의 원고료를 다은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독자투고 및 전문가칼럼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분량 A4용지 1/2, 관련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 36개월 이내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150자 내외, 아기사진



우리 집 귀염둥이 도운이를 소개합니다!



아기 이름 : 김도윤(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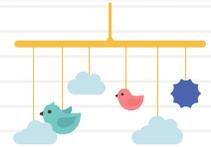
출생년월 : 2020년 8월



우리 아기를 처음 만난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첫 아기가 무섭고 두려웠던 출산이었지만 아기를 본 순간 그간의 고통은 다 잊을 만큼 너무나 작고 소중한 것입니다. 말랑말랑한 찹쌀떡 같았던 아기의 볼에 첫 뽀뽀를 한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너 이름인 나비잠처럼 팔을 머리위로 올리고 편한 자세로 잠을 자는 아기를 바라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 아가 도운아 앞으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렴. 엄마, 아빠가 너의 곁에서 언제까지나 지켜줄게. 서툴지만 노력하는 부모가 될게. 많이 사랑해 우리 아들.

박준희(상록구 해양동)

선물같이 찾아온 아기천사



아기 이름 : 한영재(남)



출생년월 : 2020년 6월

한창 결혼 준비로 정신없던 나날에 갑작스레 찾아온 우리 아들. 엄마, 아빠가 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우리에게 선물같이 찾아온 영재는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아기천사입니다. 한 팔에 꼭 들어왔던 아들이 어느새 혼자 힘으로 기어가고 앉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쁘면서도 지금 모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 '천천히 자랐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영재야!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사랑해! 항상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게 무럭무럭 자라주렴.

한승욱(단원구 백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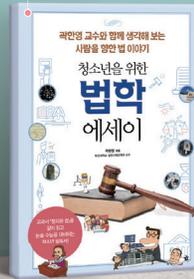




아동



청소년



성인



이달의 주제 : 법이 쉬워지는 법 이야기

아동

여기는 바로섬 법을 배웁니다

저자 안소연 글, 임광희 그림
출판사 천개의 바람

바로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법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법을 어겨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면 어떤 절차로 벌을 받는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어떻게 법으로 보호받는지 등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 개념을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로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청소년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저자 곽한영
출판사 해냄

청소년 눈높이에서 '법이란 무엇인지', '법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쉽게 알려주는 법학 관련 교양 도서다.
저자는 법의 태동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법 역사와 법 진화 과정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사건을 종합으로 아우르며 재미있게 설명한다.

성인

법을 천재가 된 홍대리

저자 김향훈, 최영빈
출판사 다산북스

법이 일상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법률 공부를 멀리하는 이유는 바로 '법률은 딱딱하고 어렵다'는 편견 때문이다.
책 속의 탄탄한 구성과 재미있는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일상 속 크고 작은 분쟁에서 승기를 잡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KBS 6시 내고향 (1월 27일)
세월이 빛은 보물을 만나다



연합뉴스TV (2월 2일)
온천없는 온천역 명칭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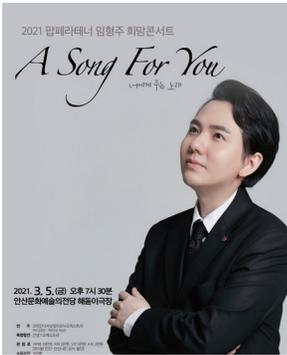


KBS 뉴스(2월 8일)
안산시 소상공인·택시기사 3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KBS 뉴스(2월 10일)
안산시 설맞이 떡국만들기 나눔 행사

03							문화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 임형주 희망콘서트	6 * 창작뮤지컬 '노이에 에르데'	
7 * 창작뮤지컬 '노이에 에르데'	8	9	10	11 * 2021 이현석 작가와 함께하는 달달콘서트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어린이뮤지컬 'Let it go 시즌2'	
21 * 어린이뮤지컬 'Let it go 시즌2'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획공연

2021 팜페라테너
임형주 희망콘서트
 '너에게 주는 노래'
 2021.3.5.(금) 오후 7시30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 극장
 (8세 이상 관람)



창작뮤지컬

노이에 에르데
 : 또 다른 세상으로의 초대
 트라이아웃
 2021.3.6.(토) 오후 6시
 2021.3.7.(일) 오후 2시, 6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 극장
 (7세 이상 관람/무료)



기획공연

2021 이현석 작가와
 함께하는 달달콘서트
 3월 _ 젊은 거장 신창용과
 함께하는 피아노 인 드림
 2021.3.11.(목) 오전 11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 극장
 (8세 이상 관람)



어린이뮤지컬

'Let it go 시즌2'
 2021.3.20.(토)
 오전 11시/오후 2시, 4시
 2021.3.21.(일)
 오전 11시/오후 2시, 4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 극장
 (24개월 미만 입장 불가)



2021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안내

- 공모기간 : 2021. 2. 16. ~ 3. 17.
- 공모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공모자격 : 안산시민 등
- 공모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 문의전화 : 안산시청 혁신법무과(☎031-481-2059)

안산 구마교회 Y교회 피해지원 및 상담 창구 운영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지원내용 : 법률·의료·정서·사회복지서비스 등 지원
- 문의전화 :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
(☎ 031-413-9414)

암행 순찰차 운행·단속 실시 운전중 교통법규를 준수하세요!

국도·지방도 암행순찰차 단속 실시 중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침범·난폭운전)



- 안산상록·단원경찰서 -

비대면 모유수유교실 운영 안내

- 기 간 : 2021. 2. 9. ~ 12. 31.
매달 둘째, 넷째주 화요일
- 장 소 : 온라인 (비대면 화상교육 ZOOM 이용)
- 참여대상 : 안산 관내 임신 37주 이상
분만 3개월 이내 산모
- 모집인원 : 1회당 10명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 '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교육신청' → '모유수유교실'
- 교육내용 : 수유자세 및 방법, 산전·후 우울 교육 및
자가진단 등
- 문의전화 : 상록수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481-5975~6)

어려운 우리 이웃을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 코로나19 등으로 소득 감소, 실직, 휴업, 폐업 등
생계 곤란 가구
- 겨울철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 취약 가구
- 빚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사는 주거 취약 가구

★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 시/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대표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3월 독자 참여 퀴즈

<안산특특>에 담긴 이야기를 꼼꼼히 읽으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하나

3월 호 표지에 나온 이곳은 어디일까요?

- ① 대부도 ② 풍도 ③ 구봉도

둘

올해 1월에 열린 '도하 월드 마스터스 유도대회' 남자 60kg급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김현진 ② 김원진 ③ 김윤진

퀴즈
응답
방법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디지털 엽서로 연결됩니다.
정답을 찾아 제출해주세요.응모자 중 2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무작위 추첨 후 개별 문자 발송 (3개월 이내 중복 당첨 불가능)

응모기간 : 3월 24일까지 2월 호 정답 : ①, ③



안산시 일자리센터를 소개합니다!



- ◇ 장 소 : 안산시청 민원동 2층
-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 업무내용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 ◇ 이용대상 :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 ◇ 문의전화 : 031-481-2919

안산시 일자리센터가 '내 일'(JOB)을 찾아드립니다.

3월 목요일에 희망잡(Job)고(Go) (소규모 맞춤형)

- ◇ 일 시 : 2021. 3. 4.(목) 오후 2시 ~ 4시
- ◇ 운영방식 : 온라인 비대면 화상면접
- ◇ 개최장소 : 안산시청 제2별관동 1층 화상면접장
- ◇ 행사규모 : 기업체 3개
- ◇ 문의전화 : 031-481-2930

3월 안산 919취업광장 (온라인)

- ◇ 일 시 : 2021. 3. 15.(월) ~ 19.(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 운영방식 : 온라인 비대면·비대면 화상면접
- ◇ 행사규모 : 구인업체 20여 개
- ◇ 문의전화 : 031-481-2919



안산시 스마트워크센터 및 SI 화상면접 체험관 개소



- 운영기간 연중
- 운영장소 안산시 스마트워크센터 SI 화상면접체험관(안산시청 제2별관 1층)
- 이용대상 안산시민 누구나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화(안산시일자리센터 031-481-2930/2882)



단원 김홍도 '화조도' - 안산시 소유



구봉도 낙조



대부해솔길



안산시의 새 노랑부리백로



시화호조력발전소



풍도



대부광산퇴적암층



탄도바닷길



안산갈대습지에 서식하는 수달



영화 '상록수' 스틸컷 - 최용신기념관



다문화 특구 - 세계 음식, 문화 체험



대부도섬포도

'안산'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

단원 김홍도, 상록수 최용신, 성호 이익

'안산'하면 생각나는 **그 장소**

대부도 갯벌과 해변, 탄도바닷길, 대부해솔길

'안산'하면 생각나는 **그 기억**

시화호조력발전소, 구봉도 낙조, 대부광산퇴적암층

'안산'하면 생각나는 **그 동물**

천연기념물 수달, 노랑부리백로, 흑고니

'안산'하면 생각나는 **그 음식**

대부도 밀 칼국수, 대부도섬포도, 대부도김, 다문화음식

한국에는 제주도와 안산이 있습니다.
안산에는 '안 산 땅'도 있지만,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합니다.